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26.(금) 08:00 배포 2024. 1. 26.(금) 08:00

‘강원2024’ 평창, 정선, 횡성, 강릉 경기와 문화예술 현장 계속 점검

- 1. 26.~29. 장미란 차관, ‘강원2024’ 현장 누비며 대회 성공에 힘써
- 대회 경비 책임지는 군 장병 격려, 지역축제 점검, 올림픽 중계 매체 인터뷰도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6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평창과 정선, 횡성, 강릉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경기와 문화예술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회 성공에 힘을 쏟는다.

1. 26. 평창에서 대회 경비 책임지는 장병 격려, 문화관광축제 현장 점검

장 차관은 먼저 1월 26일(금), 36보병사단의 평창 현장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36보병사단은 대회가 치러지는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도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강원도의 지역방위사단으로서 대회 기간 중 경비작전과 대테러안전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 차관은 경비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장 차관은 ‘강원2024’ 연계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평창송어축제’를 찾아간다. 축제 관람객들과 함께 송어 맨손 잡기, 실내낚시 등 축제 콘텐츠를 체험하고 관람객들이 바가지요금 등 관광 수용태세에 불편을 겪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역축제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1. 27. 정선에서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 격려,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 응원

1월 27일(토)에는 정선 현장을 살펴본다. 장미란 차관은 ‘정선 페스티벌 사이트’에 있는 4미터 크기의 대형 마스코트 ‘뭉초’ 앞에서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대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하이원 리조트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다. 장 차관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기와 선수촌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경기 현장도 찾아간다. 프리스타일 스키 듀얼 모굴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1. 28. 횡성에서 빅에어 경기 응원, 자원봉사자 현장 의견 청취
1. 29. 강릉에서 메인미디어센터 기자단 격려

1월 28일(일)에는 횡성의 웰리힐리파크 스키·스노보드 경기장 현장을 살펴본다. 장미란 차관은 점프대를 도약해 플립, 회전 등의 공중묘기를 선보이는 빅에어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단 7명을 응원한다. 특히 경기에 출전한 이채운 선수는 이번 대회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만큼 빅에어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 차관은 경기 관람 이후 운영인력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1월 29일(월)에는 강릉 메인미디어센터(MMC)를 방문해 '강원2024'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올림픽 중계 매체와 인터뷰도 하며 '강원2024'의 생생한 현장을 전 세계에 알린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명수현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강승 (044-203-2792)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솔 (044-203-2852)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GANGWON 2024 YOUTH OLYMPIC GAMES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